



보일공업(주)

중국 및 필리핀 축산박람회 전시



보일공업(주) (대표 김현석)는 지난 5월 18~20일까지 중국 청도축산박람회,

5월 24~27일까지 필리핀축산박람회에 홍보 및 전시부스를 운영하고 보일공업(주)의 선진 양계케이저기술력을 각국 바이어 및 양계인들에게 설명하고 큰 호응을 얻었다.

미얀마 정부와 투자 협약



보일공업(주)는 지난 1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 위치한 농림축산부 장관실에서 업무 협의를 하고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보일공업(주) 현지 사무실을 두고 적극적인 시장 진입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보일공업(주)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에 현지 사무실과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산란계 농장 시설 계약체결

보일공업(주)는 지난 14일 우즈베키스탄과 100만수 농장시설 계획을 갖고 첫 번째 단계로 45만9천불(약 5억원) 계약을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 ALJ 그룹 알



리베코프 회장은 주유소, 건축자재 등 다방면의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실크로드 유적지인 사마르

칸트 지역을 주 무대로 삼고 있다. ALJ GROUP에서는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접경지역인 수르크한다르요 주에 국경무역의 폭발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산란계 농장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보일공업(주)의 시설에 대해 성공적인 투자실적이 나올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주지사로부터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케민코리아(주)

천연에센셜오일 Orsential™ 출시!



케민코리아(주)대표 안의철)는 지난 6월 오레가노로 만든 에센셜 오일 “오센셜”을 신제품으로

출시했다. 이 제품의 특징은 많은 오레가노 품종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지닌 품종을 선발하고, 이를 검증한 후 미국 텍사스에 직접 재배를 하여 만든 제품이다. 또한, 핵심 천연성분인 카바크롤과 티몰의 최적의 혼합 비율을 찾아 이 제품에 적용하여 기존에 출시되었던 오레가노 제품들과는 성능면에서 크게 차별화 되어 있다고 케민사에서는 강조했다. 특히, 날씨가 무더운 하절기에 섭취량 감소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고생하는 사육가들한테 이 제품을 적용하면 섭취량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고, 사료효율도

향상되어 농가성적이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이보균 대표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

후배CEO의 經營者
9th CEO of the Year Award



지난 5월 26일 (주)카길애그리퓨리나(이하 카길) 이보균 대표는 서울 한

남동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농률협회 '제49회 한국의 경영자상' 시상식에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허일섭 녹십자홀딩스 회장과 함께 올해의 경영자상을 수상했다. 이보균 대표는 카길 세계 최대 규모 공장을 경기 평택에 유치했고, 외국계 기업이지만 한국 축산과 사육을 같이 하는 한국기업임을 강조하면서,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여 축산을 미래 성장 사업으로 만들고,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 공급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이 크게 인정 받았다.

우성사료

하절기보강사료 공급 및 벌크빈 크리닝 서비스 전개

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핫(hot)한 서비스로 고객을 시원하게 감동시키고 있다. 올해는 예년보다 더 무더운 여름이 예상되는바 고온스트레스에 의한 사료 섭취량 감소 및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절기 특별 사료를 공급한다. 하절기 보강사료는 체열발생을 줄이면서 영양소 이용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국내산 곡류 원료를 우성사료만의 특허 받은



공법으로 특수 가공하여 활용한다. 또한 네덜란드 기술제휴연구소 'SFR(Schothorst Feed Research)'의 자문을 통한 하절기에 적합한 아미노산/에너지 비율을 적용하여 사료섭취량 감소에서 기인하는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한다. 이외에도 적정 이온밸런스 균형을 위한 미네랄 강화, Heat stress를 줄여주는 특수 첨가제 처방 등의 효율적인 설계로 고객의 여름철 사양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주)건지

고상식 계사 설비 필리핀에 수출



지난 13일 (주)건지(대표이사 곽춘욱)에서는 필리핀에 고상식 계사 3동분 설비를 처녀수출했다. 또한 향후 100여동 이상의 수출계약이 예정되어 있어 자못 기대가 크다. 필리핀에서 고상식 계사가 주목받게 된 것은 계분냄새, 먼지나 파리발생 등이 극히 제한적인 것이 주안점이 되었으며, 항상 외기온이 높아 고밀도사육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던 것을 고상식 계사가 개운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좋은 평가로 선택되었다.